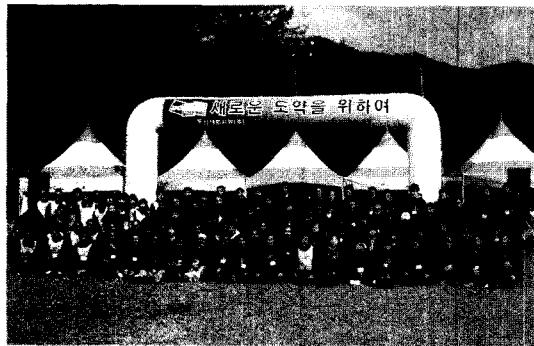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주)

2008년도 하반기 단합대회 열어

두산생물자원(주)는 지난 11월 8일 양평 한화콘도에서 2008년 하반기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박근효 대표이사 취임 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합이라는 주제로 영업사원과 내근 Staff 부직원, 현장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팀 워 향상을 위한 팀 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부에서는 전체 화합을 위한 운동회가 진행되었다.

이 날 박근효 대표이사는 지금의 어려운 시장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 단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직원들간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주)우성사료

우성사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주)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지난 12월 27일 대전 본사 1층 이벤트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1968년 12월 27일 삼성사료라는 이름으로 사료산업을 시작한 우성사료는 우리나라



의 축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시기에 사료산업을 비롯한 축수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현재는 대전 본사를 중심으로 논산과 경산, 천안에 3개의 공장과 10개의 물류하치장, 전국의 140여 개의 대리점망을 통해 전국의 축수산인에게 양질의 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료전문 회사로 성장했으며, 2003년 베트남 동나이성에 해외법인 1호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 중국 산동성 덕주시에 해외법인 2호를 설립함으로써 우성사료의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우성사료를 이끌어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현재 축산업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제 2의 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결의하며 축산전문기업으로써 “축수산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자”고 말하였다.

한편, 우성사료는 이번 창립일을 기념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3천 3백만의 성금을 TJB대전방송에 기탁했다.

청미바이오

신규 미생물 2건 특허출원

청미바이오(주) 기술연구소(소장 최성현)은 2008년 11월 11일 “신규한 젖산초유 유래의 스트렙 토포쿠스 서머필루스 CNB-11균주 및 이를 함유하는 발효초유 첨가제 생균제”를 특허출원 하였다. (특허출원 제2008-0111795호)

이 연구는 ARPC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2005년부터 3년여의 연구기간에 걸쳐 연구되어진 결과물로 올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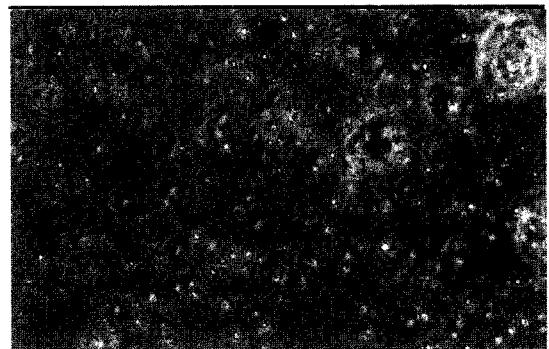
국내 축산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젖소의 초유를 이용하고자 진행된 이 연구는 젖소의 초유의 가치 평가와 사양시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안성지역 대단위 목장에서 초유를 수거하여 제품화 하고 있다.

사양시험은 마우스를 이용한 증체 시험 (정상유에 비해 7.7%증체), 알레르기 유발물질(사이트카인)분비억제효과, 자돈에서의 증체효과 (대조구에 비해 16.7%증체효과), 자돈의 설사 예방효과 (대조구에 비해 17.4%) 효과를 나타내어 현재 면역증강제로 개발되어 판매 되고 있으며, 젖소의 잉여 초유를 제공하여 줄 목장을 찾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또한 2008년 11월 14일 “가축분뇨 액비화 및 오페수 처리용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CMSI” 을 특허출원 하였다.(특허출원 제2008-0113449호)

이 연구는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액비처리용 미생물의 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화 연구이며, 암모니아 가스(32%), 황화수소(24%), 부유물질(30%), BOD (25%) 감소 효과가 있었다.

금번 연구로 개발된 제품은 1회 투입으로 1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하는 젤리형 미생물제로 그 동안 액상으로 공급되었던 미생물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또한 1회 투입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이다.



Bacillus licheniformis CMS-1

삼양사

삼양사 천안공장 HACCP 사후심사 무결함 공장 평가 획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 “무결함 사료공장” 평가를 획득했다. 안전한 사료와 축산물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HACCP 유지 발전을 거듭해온 삼양사 사료BU(BU장: 강신우 상무)는 지난 11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천안공장 HACCP사후심사를 실시 받은 결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당당히 HACCP 무결함사료공장으로 평가를 받았다.

삼양사 천안공장은 지난 2005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 HACCP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는 결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국내 회사로서는 5번째로 무결함 공장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

다. 천안공장은 HACCP 인증 이후 3년간에 걸쳐 안전한 사료 생산, 친환경 공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주변환경과 잘 융화되는 도색작업 및 암편옥수수 가공방식을 압력 밥솥 원리를 적용(CDC공법)하여 옥수수 호화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항생제 교차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플러싱 프로그램 및 플러싱 전용빈을 추가설치 운영하여 제품 안전성을 한 단계 더 확보하였다.

또한, 원료관리에 있어서도 항생제, 생균제, LMO원료, 동물성 단백질 원료를 일반원료와 분리 보관 하여 교차전이방지 프로그램을 철저히 적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SIMS(Samyang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혁신활동을 통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실현시켜왔다.

삼양사 사료BU장(강신우 상무)은 “이번 천안공장 HACCP 무결함 평가는 고객지향적 사고와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며, 향후 지속적인 SYSTEM 유지관리로 안전한 제품 생산공장 이미지 구축을 통해 고객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천안사료공장의 HACCP 무결함 평가 획득은 사료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안전한 사료의 생산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결과이다.

동조물산(주)

동절기 Lely 기술교육 개최

동조물산(주)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동절기 Lely 기술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Lely 본사에서 조사료관련 제품 담당인 노버트 반 허머트씨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동조물산(주)의 본사 및 영업소 직원을 비롯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기술교육은 세미나와 현장 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진행되었으며, 또한 Lely 제품에 대한 새로운 최신 기술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조물산(주) 이용구 대표는 “고객 여러분들께 더 나은 기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분들 모두가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동조물산(주)는 매년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농가들에게 더 나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